

광주시의회 '도청 별관' 토론회

“별관 일부만 헐면 안전 보장 못해”  
“터널 진입로 ‘오월의 문’ 만들어야”

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오후 광주시의회 5층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열렸다.

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(위원장 양해령 의원)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형보존과 철거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이 맞선 가운데 ‘오월의 문’ 등 절충안도 제시됐다. 토론회에는 건축 전문가, 시민단체 대표, 5월단체와 광주시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.

◇철거·보존 원론적 입장 되풀이

▲나간채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=도청 별관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원천적 상징이며, 민주도시로서의 광주를 전 세계에 상징하는 소중한 역사유적이다. 원형으로 살아있는 유적이 미래 후손들에게 가장 좋은 역사교과서다.

▲박홍근 전남대 겸임교수·건축사 =건축적으로 볼 때 도청별관 구조 시스템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다. 별관은 일부를 헐고 손을 보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. 결국 완전 철거나 완전 보존을 택해야 한다.

▲장원섭 진보연대 상황실장 =비상식·무원칙에 저항하는 것이 오월정신이다. 현 설계대로라면 도청 건물 5분의3이 철거된다. 이를 시민들이 아는가. 보존 가치가 있으면 안전성 문제는 그 다음 대책을 세우면 된다.

▲박무길 건축사(별관 증축 설계자) =도청 본관을 설계한 당사자다. 도청에 재직 당시 본관 증축, 경찰국 건물 증개축, 상무관 신축, 회의실 연결 건물, 별관 4차례 증축을 담당했다. 도청 건물은 행정수행의 목적이 발생했을 때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증개축됐다. 또 2층은 조적 구조에 3·4층 철근 콘크리트 접목했다. 구조 변경엔 안전문제를 책임질 수 없다. 이 건물은 수명을 다했다. 다른 대안이 없다. 시대적 아픔이 있지만 새로운 역사가 기록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.

◇‘오월의 문’ 등 절충안에 대한 공방

▲신왕성 건축사 =별관에 대한 안전성은 안전구조단이라는 데이터를 놓고 공분화한 뒤 활용 가능한 한지를 논의해야 한다. 현대 건축기술로는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해결을 위한 대안 중심의 건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. 현재 설계안도 존중하고 별관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터널식 진입로를 만드는 ‘오월의 문’을 제안한다.

▲박홍근 건축사 =기술적으로 ‘게이트’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. 하지만 별관은 다른 각도로 살펴야 한다. 문화전당만 놓고 보면 별관은 없어야 한다. 문화전당과 도

청 별관은 양립하기 힘들다.

▲장원섭 실장 =오월의 문은 별관을 보존하려는 측과 전당 공사자를 조속히 재개하려는 추진단의 입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안이다. 긍정적 요소를 잘 결합해 결론을 맺어야 한다.

◇사회적 합의 등 해법은

▲신경진 5·18부상자회장 =시민대책위가 합의한 한다면 5월 단체는 어느 안이라도 동의할 것이며 이미 유족회 이사회에서 합의는 수명을 다했다. 다른 대안이 없다면 문화전당을 빨리 지을 수 있지 연구하자.

▲김지원 광주·전남문화연대 사무국장 =19일 오후 12개 시민사회단체 원탁회의가 있다.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견제시가 돼야 한다. 이게 안되면 안된다는 시각은 또 다른 갈등이 야기할 수 있다. 설계자인 유구승 씨를 초청해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. 설계자를 초청해 의견을 듣고 제안하는 방식은 어떻겠는가.

▲정용식 도청별관 논란의 합리적 해결을 바라는 시민모임 실무위원 =광주 시민의 뜻과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시민들에게 알리지 못한 것이 문제다. 사회적 합의가 아닌 시민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.

/최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



18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‘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토론회’ 도청 패들이 별관의 철거, 원형 보존 등에 대해 찬반 토론을 벌이고 있다. /최현배기자 choi@kwangju.co.kr

# 2010년 영암 F1 그랑프리 13개팀 참가

## 올 대회 참가팀보다 3개 팀 늘어

2010년 영암에서 열리는 F1 코리아 그랑프리에 전세계 13개 팀 26명의 드라이버가 참가해 각축을 벌인다고 밝혔다.

전남도와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운영법인 KAVO는 18일, FIA(국제자동차연맹)의 2010년 F1 참가 엔트리 접수 결과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의 참가 규모를 발표했다.

이는 올해 F1에 참가한 10개 팀보다 3개 팀이 더 많은 것으로, 새로 엔트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팀은 캄포스GP(Campos Grand Prix, 스페인), US GP(미국), 마너GP(Manor Grand Prix, 영국) 등이다.

전직 F1 드라이버 아드리안 캄포스(Adrian Campos)를 수장으로 한 캄포스GP는 현재 F3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F1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는 GP 2 챔피언십을 차지한 저력을 자랑하고 있다.

US GP는 페라리와 윌리엄스를 거친 피터 윈저(Peter Windsor)와 미국 엔지니어 켄 앤더슨(Ken Anderson)이 함께 만든 미국 국적의 팀이다. 머신부터 엔진, 드라이버까지 모

두 미국 기술과 미국인으로 구성된 US GP는 한동안 F1 월드 챔피언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순수 미국 팀의 출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.

또 다른 신생팀 마너GP는 1990년 창단 이후 포뮬러 르노와 유로 F3 등에서 활동해온 팀으로, 그동안 키미 라이코넨(페라리), 루이스 해밀턴(맥라렌) 등의 유명 드라이버를 배출한 바 있다.

추가되는 세 팀은 모두 영국의 레이싱 엔진 전문기업 코스워스(Cosworth)사의 엔진을 사용하게 된다.

F1 출전 176승의 전설적인 성과를 자랑하는 코스워스는 2006년까지 윌

리엄스와 토로 모스에 엔진을 공급했지만 2007년 두 팀 모두 엔진 제조업체를 바꾸면서 F1 무대에서 잠시 사라졌다. 50년 전통의 엔진 제조업체 코스워스의 귀환으로 브라운GP를 잇는 신규팀들의 신드롬 역시 기대해 볼 만하다.

한편, F1팀은 금세기 들어 10~11개 선에서 유지돼 왔다. 13개 팀 이상이 참가한 것은 지난 1993년 이후 처음이며 당시에는 시즌 전체가 아닌 일부 그랑프리에만 출전하는 팀도 있었다. 2010년 엔트리를 제출한 팀들은 시즌 전체 라운드에 모두 참가하게 된다.

/홍형기기자 redplane@kwangju.co.kr



## 저소득층 24개월 미만 유아 월 10만원 양육수당 44개 종합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 60%로 올려

###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·복지정책

내달 1일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24개월 미만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대학병원 등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50%에서 60%로 상향조정된다.

보건복지가족부는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, 복지 분야의 제도를 정리해 18일 발표했다.

▲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=내달 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월 평균 차원에서 차상위 계층 이하의 0~1세(24개월 미만) 자녀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. 지자체 신청과 대상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▲무상교육 확대시행 =7월부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%(4인 가구 기준 258만원) 이하로 확대된다. 이들 가구의 영·유아에 대해서는 0세 38만3천원, 1세 33만7천원, 3세 19만1천원, 4세 17만2천원의 보육료가 나온다.

▲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·기간 확대 =임산부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e-바우처 방식(공운망 카드)으로 지원 중인 출산 전 진료비(20만원)의 사용범위가 산전진찰 및 출산비용뿐 아니라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용으로 확대된다. 또 사용기간도 분만에정일 15일까지에서 60일까지로 늘어난다.

▲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세대 보험료 경감 =7월부터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의 세대에 대해 보험료 중 50%를 내던 6월까지 한시적으로 낮춰준다. 대상인 50만가구가 월 13억원씩 연간 156억원의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.

▲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=138개 질환군의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시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 총비용의 20%에서 10%로 줄어든다. 이를 위해서는 ‘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’에 의사의 확인을 받아 건보공단에 신청하거나 신청대행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.

▲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=대학병원 외래진료에서 경증·만성질환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병원 등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을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50%에서 60%로 높인다.

▲국민연금과 지역보험 연계 =8월 7일부터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 지역연금과 국민연금을 가입 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. 적용대상은 법 시행 후 연금간 이동을 한 경우며 2007년 7월 23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국민연금에서 지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와 올해 2월 26일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연금간 이동한 경우도 인정된다.

▲저소득층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 일부부담금 경감 =비용문제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직장가입자의 하위 7%, 도시 지역가입자의 10%, 농촌 지역가입자의 15%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50%를 낮춰준다. /연합뉴스